

장성군, 뇌졸중·중풍·심장병 치료·연구 메카 된다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확정...설계비 등 국비 43억 반영 장성군 "신성장 동력 확보...첨단 의료산업 선도 기대"

장성에 '국립 심뇌혈관센터' 설립이 본격화된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설계비 등 43억7000만원이 확정되면서다. 장성군이 지난 2007년부터 추진했던 심뇌혈관센터 건립 사업이 14년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6일 장성군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립 심뇌혈관센터 설립 설계비 등이 포함된 관련 예산 43억7000만원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립심뇌혈관센터 건립은 연구센터와 병원, 예

방·재활센터 등을 짓는 국책사업이다. 심뇌혈관질환은 뇌졸중, 중풍, 심장병 등 심장과 뇌·혈관에 관한 질병을 통칭한다. 암에 이어 국내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국립심뇌혈관센터는 전국 14곳에서 운영 중인 권역별 센터를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설립 예정 부지는 장성군 진원면과 남면에 걸쳐 있는 나노산업단지다. 광주, 전북과 인접해 접근성

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한국광기술원, 한국심혈관스텐트연구소,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인공지능(AI) 센터 등 연구기관이 입주한 광주연구개발특구가 가까이 있어 첨단 의료기술·기기 개발과 인력 활용에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장성군은 지난 2007년부터 센터 설립을 추진했다. 심뇌혈관 질환자 치료비용이 증가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공감한 유두석 장성군수가 적극 나선 것이다.

유 군수는 정명호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와 함께 장성군에 33만여㎡(10만평) 규모의 센터 건립을 정부에 제안했다. 장성군민들도 1만인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센터 유치전에 적극 동참했다.

센터 설립이 보다 구체화된 것은 지난 2017년이다. 장성군이 센터 설립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현안 설명과 정책건의 등의 노력을 통해 제19대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에 포함시킨 것이 주효했다.

그 결과,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장성지역에 국립 심뇌혈관센터를 설립하는 안건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광주·전남 상생과제)에 반영되면서 오랜 노력이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다.

이후 꼼꼼한 준비 과정을 거치며 국립심뇌혈관센터 조성 사업이 현실화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해 12월에 국토교통부 중앙토지계획위원회에서 센터 설립 예정지를 포함한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첨단3

지구의 그린벨트를 해제한 데 이어, 올해는 보건복지부가 2억원을 들여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타당성·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용역을 추진했다.

장성군은 국립심뇌혈관센터와 심뇌혈관 관련 의료 산업체가 들어서면 의료, 행정, 연구, 산업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지역의 보고인 '죽령산 편백숲'을 활용한 재활치료 요양산업 개발 등을 통해 다양한 신규 먹거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두석 군수는 "숙원 사업인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은 전남도와 장성의 미래를 변화시킬 획기적인 전환점"이라며 "조기 착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소쇄원 광풍각 만추

'2020 담양 관광 사진·UCC 공모전'에서 김택수 씨의 '광풍각 만추'가 사진 부문 대상에 선정됐다. UCC 부문은 안호재 씨의 '하늘에서 바라본 담양'이 뽑혔다.

'광풍각 만추'는 소쇄원 광풍각의 모습과 함께 울긋불긋한 단풍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참신한 구도로 담아낸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늘에서 바라본 담양'은 드론 항공촬영 기법으로 하늘에서 바라본 담양 주요관광지의 빼어난 절경을 담았다.

이 공모전은 담양군이 담양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진행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

기자 노트 나무 군수



김용기 제2사회부 중부취재본부장

슬로건인 만큼 나무심는 지적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장흥을 상징하는 탐진강 삼심리길과 장흥C 관문 거리에 '금복서'와 '황금사철나무'가 돋보인다.

장흥을 찾는 방문객들로 하여금 향기와 시각적 이미지를 심어주겠다는 의미로 이 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또 10개 읍·면마다 소공원을 꾸미는 정원 사업도 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치적쌓기 차원에서 마무리짓는 나무심기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장흥을 푸른 숲으로 조성하려면 기후변화에 대응해 적합한 수종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흥군의 상징인 군목은 '동백나무'다. 이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나무는 심은 지 100년 후 결실을 본다. 짧은 임기에 자칫 말도 오명의 '나무 군수'로 불리지 않기를 바람 뿐이다.

/kykim@kwangju.co.kr

'삭막한 시멘트 벽 예술로 탈바꿈'... 강진군, 공공미술 프로젝트

강진군은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사업'을 삼일리와 동성로 2개 구간에서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코로나19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민과 소통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품격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미술 작품을 전시하거나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강진군은 국비 4억원을 들여 내년 2월까지 사업을 한다.

지난 8월 장소 선정을 시작으로 작가님 공모를 통해 한국미술협회 강진지부팀의 '강진 품애(愛) 안기다'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현재 미술인 40여 명이 참여해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해 벽화작업이 이뤄지며 삭막했던 거리 벽면이 밝은 미래와 희망을 담은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h@kwangju.co.kr



나주시 '숨은 의인' 선정

나주시는 김성주(75) 씨 등 3명을 '숨은 의인'으로 선정, 시상했다고 6일 밝혔다.

'숨은 의인상'은 지역과 시민사회를 위한 봉사나 나눔 등을 실천한 숨은 인물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강진군 나주시시장의 공약 중 하나다.

나눔실천 부문에서 선정된 김성주, 오종순(67) 씨는 장학금 지원, 다문화가정·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과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희망전과 부문에 선정된 정은주(52) 씨는 아파



왼쪽부터 김성주, 오종순, 정은주 씨. 트 관리소장으로 주민회합단지, 푸드뱅크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

광주문화신협

조합원님과 함께한
광주문화신협 창립 27주년
광주대표 서민금융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아파트담보대출 아파트 감정시세 최고 70~80% 추가신용대출 상담가능	담보대출 시세 80%까지 법인 100억 개인 50억 가능 각종 부동산담보(아파트, 주택, 상가, 빌딩, 대지, 전·답, 임야 등) 및 신축자금(시설자금) 등	상생협력대출금 *** 사회적 경제기업 *** 대출금리 2.28% 대출대상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정부보증 햇살론대출 근로자 최대 1,500만원 (근로자 금액한도 기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지원) 자영업자 최대 2,000만원
---	---	---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선로 91번길 20-4
☎ 02171@cu.co.kr ☎ 1644-7990

문흥본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매곡지점 572-4150	침단지점 576-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동광주지점 264-4150
---------------	---------------	---------------	---------------	---------------	----------------	----------------